

## 우리나라 자생수종 4

### 귀룽나무



전 승 훈

경원대학교 도시조경학부 교수

- ▶ 과명 : 장미과(Rosaceae)
- ▶ 학명 : Prunus padus L.
- ▶ 영명 : European Bird Cherry, Mayday tree, Maybush
- ▶ 한명 : 稠李九, 九龍木
- ▶ 기타 :

#### □ 분포 및 생태

##### • 자생적 분포범위(native range)

유럽과 중국과 일본, 러시아, 그리고 우리나라에 주로 분포하는 북반구 온대 및 아한대 수종으로 광역분포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적으로 해발 1,800m이하의 고지대에서부터 저지대에 이르기까지 넓은 분포역을 가지고 있으며, 입지환경적으로는 적습하고 부식질이 풍부한 북사면의 계곡부에 주로 자생한다.

##### • 생육가능범위(useful range)

우리나라에서는 자생적 분포범위가 넓은 만큼 전국 어디에서나 생육이 가능하며, 특히 공중습도가 높은 계류나 연못 등 물가주변이 적지이나 내건성도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식재가능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 • 생태

냉온대지역의 대표수종으로 주로 산새들에 의한 종산분산기구

를 통해 분포영역을 확장하나 왕성한 맹아지의 신장으로 세대를 이어가는 무성번식력도 우수한 수종이다. 양수성 수종으로 햇빛이 풍부하고, 습윤하며 부식질이 풍부한 양토 또는 사질양토에서 생장이 양호한 속성수이다.

### □ 식재기능 및 기법

개방형 둥근수관으로 수세가 웅장하기 때문에 공원이나 대규모 녹지공간에 군식또는 독립수로써 기초식재나 표본식재에 매우 적합한 수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하수형의 가는 가지는 동적인 효과를 줄 수 있어 개방공간이나 물가주변의 경관형성에 매우 바람직하다. 아울러 야생생물(특히, 산새류)의 서식처 복원이나 주변부 식재에도 유용하며, 또한 왕성한 맹아력과 성장속도를 고려한다면 비탈면의 녹화에도 사용하 가능하다.

### □ 크기와 습성

낙엽활엽소 교목으로 다자라면 수고 약 10~15m에 이르는 생장이 매우 빠른 수종이다. 줄기는 곧추 자라는 습성이 있으나 대개 밑에서 여러 줄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한

측지의 신장이 빨라 개방된 둥근수관을 형성한다. 특히, 어린가지는 가늘고 휘어지는 성질이 있어 하수형의 아담한 수형을 만들게 된다. 또한, 오래된 나무일수록 맹아지의 발달이 두드러져 군락상의 수림을 형성하기도 한다.

### □ 입지적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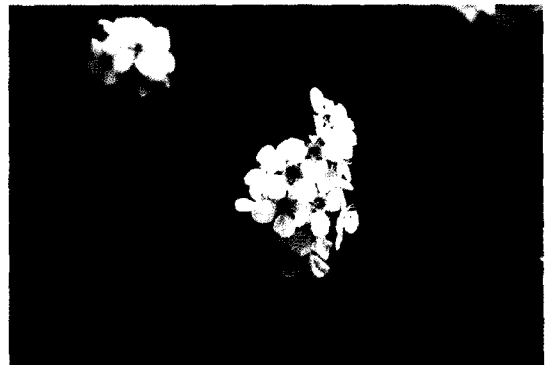
자생지 환경에서 양수성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식재환경의 햇빛에 대한 고려는 매우 중요하며, 생장이 빠른 속성수이자 천근성수종이기 때문에 습한 환경조건의 조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나 동시에 양호한 배수능을 가진 사질양토가 적합하다. 내한성과 내공해성, 내염성이 우수하며, 내건성도 비교적 있는 편이다.

### □ 계절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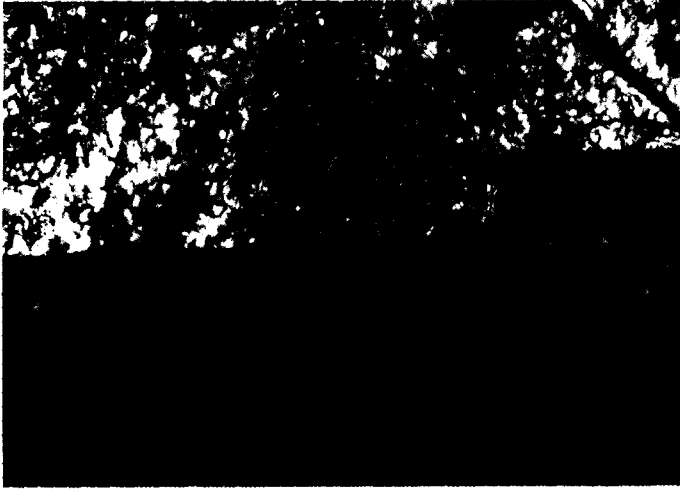
귀룽나무의 시각적 매력은 무엇보다도 수형과 잎에 있다 할 것이다. 특히 초봄, 산기슭의 냇가 주변에 무리지어 원형으로 드러내는 파릇파릇한 자태는 빼어난 형태와 색채의 조화미로써 발걸음을 절로 멈추게 한다. 이



▲ 귀룽나무



▲ 귀룽나무



▲ 귀룽나무



▲ 귀룽나무

는 소지가 버드나무처럼 가늘고 부드러워 아래로 처지고, 개엽의 시기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앞이 짙어갈 무렵 피어나는 순백의 꽃무리는 흐드러지게 달리는 엄청난 개화량에서 우선 장관을 이루고, 또한 주변을 달콤하게 가득 채우는 아름다운 향기가 좋다. 이로써 곤충을 불러모으고 새를 유인하여 자연의 소리가 풍성한 화원을 개장하게 된다. 특히, 새들은 귀룽나무가 제공하는 풍부한 열매를 통하여 초여름의 성찬을 즐길 수 있다.

아울러 무더위에 지친 사람들도 다소 씹쓸하지만 어느 체리보다도 빨리 익는 버찌의 맛을 보면서 풍부한 귀룽나무의 녹음아래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가을이 되어 울긋불긋한 잎의 변화는 귀룽나무가 주는 보너스 경관이라 할 것이다.

#### □ 유지관리

귀룽나무는 노천매장을 거쳐 이듬해 파종하는 실생법과 왕성한 맹아력을 이용한 삼목법으로 잘 번식되며, 병충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관리가 필요하나 유지관리가 비교적 쉬운 편이고, 이식정도도 매우 용이한 수종에 속한다.

어린가지에서 악취가 난다하여 파리를 쫓는데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일반인게 널리 알려져 있지는 못하여 우리 주변의 식재지에서 쉽게 찾아보기는 어려운 편이다.

#### □ 관련 종

분포역이 넓기 때문에 서울귀룽, 털귀룽, 흰귀룽, 차빛귀룽나무 등 다양한 변종이 알려져 있다. 